

C. ILLIES & Co.의 極東進出

金 光 洙*

- I. 序 言.
- II. C. ILLIES 商社의 創立.
- III. 獨逸의 經濟 社會.
- IV. C. ILLIES 商社의 活動.
- V. 日本에 있어서의 產業擴大政策.
- VI. 結 言.

I. 序 言

獨逸資本主義는 18世紀 末로부터 19世紀 後半에 걸쳐 그 構造를 확립했으며 유럽大陸 第一의 經濟的 強國에로의 급진적인 成長은 一般的으로 1871年의 Otto von Bismarck에 의하여 상징되어지는 帝國創建에 의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1815年의 Wien 會議以後도 39의 小領國으로 分割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時의 독일 경제는 統一的인 國內市場의 形成에는 아직 먼 狀態이었다. 1818年에 있어서의 새 關稅法과 關稅率의 採擇, 1828年에 있어서의 南獨 關稅同盟의 結成, 그리고 1834年 프로이센을 盟主로 한 독일諸邦 18個國의 독일關稅同盟의 成立 등을 거쳐 독일의 統一은 經濟的 方面으로부터 漸進的으로 이룩되기 시작했다. 其後 10年 即 1843年에 프로이센議會는 처음으로 東洋方面에 대한 貿易 開拓에 關한 建議案이 提出되었다. 프로이센政府는 이 建議案의 趣旨에 따라 Hansa同盟 諸市의 도움을 받아 Friedrich Albrecht Graf zu Eulenburg (1815~1881)를 使節團長으로 하는 소위 Eulenburg-Mission을 편성 1859年 10月 25日에 Thetis艦과 Frauenlob艦이 同年 12月 11日에 旗艦 Arcona號가 그리고 1860年 3月 7日에는 運送船 Elbe號가 各各 독일의 港口를 出發하여 極東으로 向하게 하였다⁽¹⁾. 그리하여 이들에 의하여 독일과 日本間의 修好通商條約 및 貿易

*法經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1) vgl., 丸山國雄: 日獨交涉史話, 東京, 1941, S. 26~35.

章程이 체결되어 公式的인 交易을 保障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政治的인 側面에 있어서의 條約체결이 行하여지기 以前에도 독일商人들의 極東에 있어서의 활약은 이미 行하여 지고 있었다.

勇氣와 진취적인 의욕을 가지고 開拓者의 精神으로 諸國을 相對로 競爭하면서 그들의 位置를 굳혀야 했던 極東에 있어서의 독일商人들에 관한 귀중한 문헌과 자료는 世界1次大戰 關東地方의 대지진 그리고 世界 2次大戰을 지내면서 그 大部分을 잃어버렸고 또 史料를 提供할 만한 人員도 이미 存在치 아니하다. 이러한 理由로 이 分野에 關한 分析이나 研究는 몹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其中 C. ILLIES 商社만이 스스로 社料를 수집하여 創業 100週年을 기념하여 史學家 Käthe Molsen을 통해 社誌를 發刊하였다⁽²⁾. 이제 C. ILLIES 商社의 先例를 分析하므로써 獨逸企業의 對極東進出의 經路 그 擴張方向 그리고 그 活躍에 대하여 實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研究에 必要한 資料의 絶對적인 不足은 充分한 科學的인 分析과 結果는 가져올 수 없다는 出發로부터 始作함을 附言할 수밖에 없다.

II. C. ILLIES 商社의 創立

Düsseldorf 出身의 獨逸商人 Louis Kniffler가 그의 체재지 Batavia로부터 Bremen 出身의 Martin Hermann Gildmeister를 同伴하여 日本 長崎에 上陸한 것은 1859年이었다. Hamburg 所在의 Bellenhagen & Co.에 근무하고 있었던 Louis Kniffler는 當時 Batavia에 設立되어 있었던 Pandal & Stiehauser 商社와 自己가 근무하고 있는 會社가 긴밀한 關係를 맺고 있음을 契機로하여 1852年 Java의 首府로 장소를 옮겼다가 荷蘭政府가 소위 Kultursystem을 導入하여 該地域에 있어서의 商易에 있어서 獨占權을 享有하자 그곳을 떠나 日本으로 移動하였던 것이다.

Hamburg 出身의 商人 Friedrich Pandel과 Georg Friedrich Stiehaus가 母國을 떠나 Batavia에 도착하여 Pandel & Stiehaus 商社를 創立한 것은 1848年이며 이들은 Hamburg에 머물러 있었던 同志 Jakob Bellenhagen과 相互 긴밀한 關係를 維持하면서 交易을 漸進的으로 擴張해 갔다. Pandel과 Stiehaus는 會社의 發展과 그들의 다른 目的을 위하여 Jakob Bellenhagen에게 助力者를 選擇 派送해 주기를 요청하였던바 이 要請에 의하여 추천된 青年이 바로 Louis Kniffler이다. Pandel과 Stiehaus는 Louis Kniffler를 맞이하여 그 能力과 努力에 만족하였다. 1855年 Stiehaus가 事業上 싱가포르 여행中 급작히 死亡했으며 1857年에 또한 Pandel이 會社의 發展과 企業同志의 相面을 目的으로했던 歐州旅行의 歸路에 死亡하자 不得已 前年 Hamburg에서

(2) vgl., Käthe Molsen; C. ILLIES & Co., 1859~1959,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deutsch-japanischen Handels, Hamburg, 1959.

Pandel & Stiehaus로 轉入되어 같이 活動하던 L. W. Stäcker와 더불어 會社를 맡아 經營의 責任을 지게 되었다.

美合衆國과 日本間에 체결된 修好通商條約이 發效케되는 1859년에 着日한 L. Kniffler는 同行者 H.M. Gildemeister와 더불어 同年 7月 1日 長崎에다 L. Kniffler & Co.를 創立하였는바 이것이 日本 땅에 설립된 最初의 독일商社이다.

Kniffler는 日本의 事情을 상세히 本國에 알리므로서 독일企業의 極東進出의 艱難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駐長崎獨逸領事館의 副領事 또는 명예領事로서 直接 독일人의 善導와 保護에도 努力하였다. L. Kniffler & Co.는 罽呂제품, 鐵, 錫, 鉛, 銅等 金屬類, 寒天, Rapssaat, 鰾, 樹脂等 廣範한 商品을 去來物로 取扱했다⁽³⁾.

1861年 Louis Kniffler는 商易擴大를 위하여 歐州旅行을 하였다. Hamburg에 있는 Bellenhagen & Co. 그리고 Krefeld市에서는 그의 同生 Carl Kniffler에게 對極東輸出商品의 확보와 船續等을 責任지었던 것과 같이 많은 港口에 이와 같은 同志를 확보하러 努力하였으며 Rheinland訪問時는 英國產 商品의 對日輸出을 위한 對策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1861년에 L. Kniffler는 橫濱에다 첫번째 支店을 설치하고 그 經營을 Gildemeister에게 맡겼다. 1867년에 프로이센의 副領事로 그리고 1868年 日本을 떠나 歸獨할 때까지 Gildemeister는 계속 橫濱에 주재했다. 1860년에 L. Kniffler 商社는 Gustav Reddelien를 맞이하였고 그는 長崎에서 좋은 成果를 견으며 經營에 參加하였다. 1866년부터 그는 L. Kniffler의 同業者로 되었다.

1862년에 香港에서 Siemssen & Co.를 經營하던 Hamburg 出身의 August Evers가 L. Kniffler 商社와 關聯을 맺게 되었으며 1866년에는 Kniffler와 Reddelien은 A. Evers를 代理支配人으로 그리고 1868년에는 세번째 同業者로 삼게되었다. 同時에 Evers는 그가 北獨同盟의 副領事로 있었던 兵庫港市의 支店の 指導를 擔當케 되었다. 그러나 그는 1872년에 L. Kniffler 商社를 떠나 Julius Simon과 더불어 Firma Simon, Evers & Co.를 創立 經營케 되었다. 其後 스위스 國籍의 生絲生産關係專門家 Hans Conrad Morf, Krefeld 出身의 生糸關係專門家 Wilhelm Pardun, 독일과 덴마크 國境에 있는 小都市 出身의 A.R. Weber 등이 L. Kniffler 商社를 거쳤다.

Bellenhagen & Co.를 통하여 1866년에 Carl Illies가 L. Kniffler & Co.로 日本에 도착했다. 1840年 12月 6日 Waren/Mecklenburg에서 出生한 Illies는 그의 徒弟期間을 보냈던 Neubrandenburg를 떠나 1859年 Hamburg로 옮겼으며 1861년까지 여기서 勞動했다. 其後 1962년부터 '63년까지 Newcastle on Tyne에 체류하면서 그의 徒弟學習을 完成했다. 其後 다시 Hamburg로

(3) vgl., Kathe Molsen; a. a. o., S. 38.

돌아와 Bellenhagen & Co.에 고용되었으며 L. Kniffler & Co.와의 계약에 따라 1866년에 上海를 거쳐 長崎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는 성실히 근무하였기 때문에 1868년에 Kniffler는 Gildemeister가 歸獨하려 할때 그를 橫濱所在의 支店經營을 責任지웠다. 그리고 또한 그는 1870~72年間에는 駐橫濱北獨同盟의 領事職을 맡기까지 하였다.

1873年 正月 1日 Kniffler는 Illies를 同業者로 하였다. 當時의 記錄에 따르면 L. Kniffler & Co.는 日本에 4個의 支店과 16名의 店員이 고용되었음을 알수있다. 長崎에 3名, 兵庫에 7名, 橫濱에 4名 그리고 大阪에 2名이 근무하고 있었다. Louis Kniffler는 그의 長崎商店과 橫濱 神戶 大阪等地에 있는 支店에서 後에 對日本交易에 크게 기여한 젊은 獨逸商人들을 키웠는바 그들의 代表者가 Gustav Reddelien, August Evers, Eugen Bohlens A.R. Weber, Amendus Reddelien, Conrad Morf, A. Oestmann, Wilhelm Pardun 等이다.

Louis Kniffler는 外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理由에서인지 건강이 몹시 弱하여져서 그에 의하여 創立된 商社를 떠나려 決心했으며 三同業者中 Düsseldorf에 있었던 Louis Kniffler와 Gustav Reddelien는 橫濱에 있는 Carl Illies를 信任하고 그에게 1859년에 創立된 그들의 商社를 맡아 經營토록 양도하였다. C. Illies는 全人員 土地 銀行 殘高 倉庫 그리고 會社의 全去來關係 등을 引受하였다. 全的인 責任을 맡은 C. Illies는 商社名을 自己이름을 따서 1880年 5月 31日부터 C. Illies & Co.로 改稱케 하였다. 이렇게 되므로 1859년에 創立된 L. Kniffler & Co.는 21年만에 改名함으로써 C. Illies & Co.로 새 出發케 되었다. 其後 이 會社의 社歷을 參考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⁴⁾.

1893年 Gustav Reddelien과 Hedwig Kniffler는 C. Illies 商社의 有限責任社員으로부터 離社했다.

1898年 5月 Hamburg所在의 支店이 C. Illies & Co.의 主任所로 變更하였다.

1902年 Carl Illies 二世는 이 商社의 橫濱支店의 出資者로 되었다.

1910年 2月 1日 Carl Illies는 Hamburg에서 死亡하고 그 二世가 商社를 繼承하였다.

1911年 Robert Koops가 神戶支店의 同業者로 되었다.

1920年 Robert Matthiass가 Berlin 事務所를 開設하였다.

1924年 Paul Garben이 日本의 代理人으로 指名되었다.

1925年 Robert Hillmann이 東京支社의 新參社員으로 參與했다.

1935年 3月 19日 Carl Illies 二世가 Hamburg에서 死亡 同年 12月 19日 Carl Jürgen Illies가 商社의 同業者로 되었다.

1939年 北京에 支店을 開設하고 Herbert Aug. Illies를 責任者로 Rudolf Hillmann을 有限責任

(4) vgl., Kathe Molsen; a. a. O., S. 92~93.

社員으로 採用했다.

1950年 Rudolf Hillmann Hamburg 商社의 Seniorchef로 任命되었다.

1951年 Robert Koops Hamburg에서 死亡하였다.

1952年 東京所在 支社가 再開店되었다.

1954年 大阪所在 支社가 再開店되었으며 同年 Robert Matthiass가 Hamburg에서 死亡했다.

1958年 5月 7日 Rudolf Hillmann이 死亡하자 Paul Garben이 會社의 責任을 委任받았다. 現在는 Carl Jürgen Illies의 아들 Carl Heinz가 會社를 총지휘하고 있는바 그는 四世이다. 該商社가 極東으로 進出하려던 또 活躍했던 當時의 독일 경제사정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III. 獨逸의 經濟社會

1816년에 組織되어진 獨逸聯邦은 35個의 君主國과 4自由市로 形成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當時의 독일경제는 統一된 國內市場의 형성에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었다. 독일에 있어서 諸小主權國家들은 各自 獨自의인 關稅組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各國은 獨自의 經濟政策과 主로 財政收入을 확보하기 위한 目的으로 獨自의인 關稅政策을 採擇하고 있었다.

1828년에는 Byern과 Wüttemberg가 Preußen의 關稅同盟에 對하여 共通의 關稅率을 採擇하고 南獨關稅同盟을 結成했다⁽⁵⁾. 그리고 Hannover, Sachsen, Kur-Hessen, Braunschweig, Thüringen諸邦 Frankfurt/M 그리고 Bremen 등의 中部諸邦도 結集하므로서⁽⁶⁾ 독일은 3個의 關稅地域으로 並立되었다가 프로이센이 적극적으로 南獨의 關稅同盟에 接近하였고 1829년에는 南獨 關稅同盟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데 成功하므로서 經濟的인 統合이 漸進的으로 이룩되어갔다. 1834년에는 프로이센을 盟主로하여 독일諸邦 18個國이 Der Deutscher Zollverein을 結成하므로서 8253 meilen² 人口 2,500萬名을 함유하는 強力한 關稅障壁에 둘러싸인 經濟圈을 形成했다⁽⁷⁾. 그리고 이 關稅同盟은 점차 擴大하여 1852년에는 거의 大部分의 독일諸邦으로 波及되었으며 1867년에는 北獨同盟과 南獨諸國과의 條約에 의하여 新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 그 內容과 範圍가 擴大 有效 有力한 것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다가 독일은 1864년에 있어서 對 덴마크 1866年の 對오스트리아 그리고 1870年の 對프랑스戰爭에 勝利하므로서 1871年 1月 18日 프로이센王 Wilhelm 一世를 독일황제로 하고 聯邦的 帝國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프로이센의 王이 거의 聯邦政府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5) vgl.,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lf. 2,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S. 415.

(6) vgl., a. a. O., S. 415.

(7) vgl., a. a. O., S. 416.

1834年으로부터 1873年の 期間中 독일은 中央유럽의 政治的 經濟的 後進諸國家의 集合體로부터 先進的인 技術的基盤을 다지면서 急速으로 發展하는 工業에 의하여 牽引된 하나의 統一的 帝國으로 變轉을 이룩했다. 이러한 發展을 必至의 것으로 한 것은 英國을 代表로하는 西유럽諸國의 工業化의 파도이었다. 독일은 이에 對應할 必要에 의하여 1834년에는 關稅同盟에 의한 聯邦諸國間의 流通統一, 1848年の 革命을 經過하여 1871년에는 독일帝國을 形成하기에 이룩하는바 이것은 프로이센을 中心으로한 “위로부터”의 國家的 政策과 高揚的 民族主義에 基하는 軍事力을 그의 計劃的인 手段으로 隨伴했다.

독일에 있어서 産業革命의 準備期는 英國에 있어서 本格的인 産業革命이 開始되었다고 보는 時點 即 大略 1780年代의 中葉이라고 主張되어지고 있는바 그 理由는 이 時期에 있어서 Sachen, Berlin 그리고 Düsseldorf 近郊의 Rhein 右岸地域에의 最初의 紡績機를 發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⁸⁾. Düsseldorf에서는 이미 紡績工場內에 紡績機가 設置되고 稼動되어지고 있었으며 또 Ratingen에서는 企業人 Brüggelmann이 英國人技師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미 1784년에 Waterfram을 제작하고 1785년에는 領主로부터 獨占特權을 획득하여 유럽大陸 最初의 紡績工場을 建設했었다⁽⁹⁾. 그리고 같은 때 Sachen 地方에서는 家內工業間에 手動의 Spinning Jenny가 나타났으며 여기서 紡機의 利用은 紡績工場의 建設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小經營內에 퍼져 곧 紡機의 製作工이 出現케 되었다⁽¹⁰⁾. 그리고 最初의 紡績工場이나 紡績機와 같은때 即 1785년에는 독일에 있어서 最初의 Watt型蒸氣機關이 組立되고 Mansfeld 地域의 鑛山區 Hettstedt에 설치되었다⁽¹¹⁾.

그러나 독일의 纖維工業은 Jena의 敗戰 大陸封鎖 그리고 英國製品의 流入 등으로 적어도 19世紀前半에 있어서 독일經濟를 成長 發展 跳躍시키는 主導工業으로서 機能하지는 못했다고 主張된다⁽¹²⁾. 그러므로 19世紀前半에 있어서 經濟의 進歩는 독일經濟全體로부터 본다면 1840年代의 鐵道建設에 의하여 처음으로 可能케된 跳躍을 위한 準備期에 이룩된다고 본다. 이 期間의 社會 經濟的인 變轉을 簡單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經濟的인 跳躍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社會制度가 이것을 可能케 하도록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에는 農業中心의 社會的組織으로부터 工業中心의 그것으로 編成의 變化가 實現되어야 한다. 소위 農民의 해방은 各國마다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一般的으로 이러한 機能을 다

(8) H.Mottek;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Bd. II, Berlin, 1864, S. 100~102.

(9) vgl., R. Redlich; Geschichte der Stadt Ratingen von den Anfängen bis 1815, Ratingen, 1926, S. 236

vgl., A.Overmann; Die Entwicklung der Leinen, Woll-und Baumwollindustrie in der ehemaligen Grafschaft Mark unter brandenburg-PreulBischer Herrschaft, 1909, S. 52, 53 & 56.

(10) vgl., 大塚久雄 編; 西洋經濟史, 東京, 1968, S. 197.

(11) H. Mottek; Einleitende Bemerkungen Zum Verlauf und einigen Hauptprobleme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Berlin, 1960, 大島隆雄譯; ドイツ産業革命, 東京, 1970, S. 17.

(12) 佐藤 明; 近代世界經濟史, 東京, 1974, S. 139.

하는 것으로서 近代化過程에 등장하는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農民 해방도 그 自體로서는 이러한 意圖는 없었지만 工業化의 基礎的 先行條件의 創出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自由스러운 勞動力의 創出이나 市場經濟를 위한 農民農場이나 貴族領地를 統合하기 위한 基礎가 이것에 의하여 놓여지며 또 個人의 可動生 分業 個人活動의 強調는 資本主義의 要求하는 바이지만 이것은 남은 農業制度의 改革 없이는 不可能하다. 18世紀에 있어서 독일의 封建的 農業制度에는 二 主要形態가 있었다. 하나는 西部獨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土地는 主로 農民에 의하여 耕作되고 領主는 貨幣나 現物로 地代를 徵收했다. 強制勞動이나 農奴制의 法的形態는 消滅하거나 或은 廢止되었고 남은 農地形態나 中世유럽의 特徵的이었던 開放耕地制度는 殘存하고 있었다. 東部독일은 많은 土地에서는 小作人의 예속적 勞動을 使用했으며 市場을 위한 販賣를 위하여 剩餘物 生産目的을 가지고 領主의 經營 管理下에 耕作이 行하여졌다. Stein과 Hardenberg에 의하여 볼 수 있는 農業改革은 實質的으로는 農民解放을 가져왔다. 要컨데 독일에 있어서 工業化에로의 準備期에 있어서 行하여진 農民解放은 Elbe 以東에서는 Guts-herrschaft의 Junker 經營에로의 轉化로 나타나 위로부터의 農業資本主義化를 實現했으며 이러한 경우 勞動力 創出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大農法에 의한 農業生産力의 上昇에 의하여 相對的 過剩人口를 創出하여 19世紀 後半에 基幹産業部門에로의 勞動力 供給이 行하여졌다. 이에 대하여 Elbe 以西에 있어서는 農民經營型의 農民解放은 生産力의 上昇에 의한 過剩人口의 創出이라기 보다는 僞裝失業型의 過剩人口를 낳아 이것이 西部獨逸의 工業勞動力을 극히 비참한 과정을 거쳐 練成시켰다고 할 수 있다⁽¹³⁾.

2) 關稅同盟의 成立이다. 統一關稅의 確立에 의하여 독일의 工業化가 促進되었다. 全獨을 原料 製品 食糧의 流通이 아무런 妨害없이 可能케 되었고 製造業間의 競爭이 技術의 發展을 促進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地域間의 商業的 聯關을 強化시킴으로서 남은 地域的 黨派性이나 局地的 相違를 파괴시키는 傾向을 가지므로서 장차 독일의 統合을 위한 기초를 단단히 했다⁽¹⁴⁾.

3) 鐵道の 建設

독일에 있어서 最初의 鐵道建設은 1835년에 이룩된 Nürnberg-Furth間의 짧은 路線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伸張하여 1860년에는 5,600km에 이르게 되었다⁽¹⁵⁾. 鐵道の 건설은 독일에 있어서 他産業의 發展에 크게 자극을 주었다. 첫째 鐵道發展의 영향으로 國內의 自然資源의 充分한 利用이 可能케 되었으며 이어서 工場의 發展이 行하여졌다. 또 鐵道 그自體가 一부의 수요에 의하여 鐵工業의 發展을 자극하고 Berlin의 Borgig와 같은 機關車 生産企業의 創立을 가져왔고 또 石炭生産力의 向上도 直接 鐵道の 수요에 關係되었다. 原料 食料品 一般製品等

(13) vgl., J.H. Clapham;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4th. ed., Cambridge, 1963, S. 29~52.

從來는 接近 不可能했던 地域과도 流通關係가 形成되었다. Westfahlen의 鐵工業이 石炭이나 鐵鑛石 供給地로부터 멀리 떨어져졌다는 핸디캡이 카아버되었고 Saal이나 Schlesien과 같은 工業地帶가 鐵道の 자극으로 發展의 氣運이 높아졌다. 그리고 나아가 鐵道の 建設은 독일로부터 局地性과 停滯性을 除去하고 國際的인 性格을 부여하므로 새로운 예기되는 變化에의 對應能力을 부여했다. 海運에 대하여 附言하면 1887년에는 20,390隻의 內航船舶만을 확보하고 있었던 독일도 外國貿易과 植民地爭奪이 加重하자 漸次 그 保有高가 急增하여 1880년에는 33.5 Milliarden Tonnen Kilometer의 外航船舶을 기록하고 있으며 10年後인 1890년에는 內航 5.6 外航 74.1 Milliarden Tonnen Kilometer를 기록함으로써 海外市場開拓과 商品輸送을 위한 準備를 갖추었던 것이다⁽¹⁶⁾.

4) 紡績業이 독일에 있어서 重要的 生産部門으로 등장하기는 1850年代 以後이다. 1800年頃에 작센全體에 겨우 2,000臺의 紡績機가 있었고 30年代에도 別로 큰 進展이 없었다. 1852년에 있어서 독일의 綿紡錘數는 90萬錘였으나 60년에는 225萬錘로 急增했다. 또 노동자數는 紡績部門에 38,000名, 織布部門에 193,000名 原綿의 소모량은 1861년에 67,000噸에 達했다⁽¹⁷⁾. 1850年代부터 大規模 工場化와 技術的 改良이 行하여진 독일의 紡績業은 代表的 輸出産業으로 成長했다.

5) 鐵鋼工業을 分析하면 1830年代에 있어서 독일의 銑鐵生産量은 겨우 13萬噸으로 當時의 英國에 比較하면 約 1/9에 不過했다. 1850年代부터 近代的方法에 基하는 銑鐵과 鋼의 生産이 特히 Ruhr와 Saal 地方에서 현저히 발달하고 또 Essen Krupp과 같은 企業的 發展이 行하여져 1869년에 있어서 全獨의 銑鐵生産量은 約 140萬噸에 達하였다. 그리고 73년에는 200萬噸으로 增加하였고 全體의 約 15%가 鐵鋼의 生産에 해당된다. 독일의 製鐵業은 內需志向型이며 이것은 國內의 工業化 大都市의 成長 그리고 建築 鐵道の 建設과 깊이 關聯되었다. 鐵鋼工業中 特히 輸出을 많이 한것은 完成된 機械製品이었고 1887년에 있어서의 그 輸出額은 5,280萬말크에 達하였다.

6) 19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傳統的인 金融擔當者는 商人 出身의 個人金融業者이었다. 이들은 17世紀以來 副業的으로 貨幣去來 或은 貨幣貸付 및 어음去來 等の 諸機能을 經營하였으나 19世紀 前半에 있어서 即 産業革命의 준비기中の 生産構造의 變化에 따라 解體 或은 變轉하기에 이르렀다. 이 變轉의 問題點은 商業資本이라는 傳統的인 要素가 貯蓄의 흐름을 멈추게하는 기능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다 流動的인 機能으로 轉換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러한

(14) vgl., 林達; ドイツ産業革命—プロイセンにおける近代化過程の 分析, 東京, S. 252~276.

(15) vgl., J. H. Clapham; a. a. O., S. 152-113.

(16) vgl., Sartorius von Walterhausen;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Jena, 1920, S. 541.

(17) vgl., 佐藤 明; 近代世界經濟史 a. a. O., S. 150~151.

轉換은 19世紀 前半에 있어서는 民間 企業家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行하여졌다.

프로이센政府는 企業에 融資해 주기 위하여 近代的 發券銀行의 設立이 期待되었으나 容커-의 利益을 지키기 위하여 産業資本의 形成에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發券銀行의 設立을 허가치 아니하고 民間企業人에 의한 自主的인 轉換을 阻止하려 했다. 1846年 프로이센銀行이 經營에 강한 官僚統制가 加하여진채 私有銀行으로 設立되었는데 이것은 프로이센의 후리드릿히 大王이 Berlin에 設立했던 王立銀行을 改組한 것이었다. 이 銀行이 가졌던 發券權은 프로이센 唯一의 것이었기 때문에 事實上 政府의 意圖에 따른 中央銀行格이었다. 이것은 1875年에 독일帝國銀行으로 成長했다. 그러나 當時 독일의 經濟狀態는 프로이센銀行만으로는 不充分했으나 프로이센領內에는 發券銀行을 設立할 수 없었던 企業人은 프로이센領外의 他聯邦政府下에서 銀行을 設立했다. 其例로 1848年에 Köln에 그리고 1850年代에 있어서는 Braunschweig, Weimar, Sondershausen, Darmstadt Meiningen, Gotha, Hamburg 其他 等地에 設立된 合資會社 형태를 取한 合資銀行이었다. 1870年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銀行은 巨大産業과 結合하여 世界에서 가장 進歩된 金融資本을 形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바로 독일産業革命의 獨創物이었다고 지적된다.

7) 1840年代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이미 其以前에서부터 資本主義的 工業經營이 支配하고 있었던 諸部門에 있어서는 技術的 進歩를 볼 수 있었다. 機關車 蒸氣船에 있어서 새로운 技術導入 開發을 볼 수 있으며 重工業領域에서는 파동法의 採用이라는 決定的인 技術進歩를 지적할 수 있다. Dortmund近郊 Hörde에 건설되었던 Hermann 精鍊所의 건설이 其一例이다⁽¹⁸⁾. 技術進歩는 機械製造業에서도 볼 수 있다. 特히 1850年代以後 현저했다. 纖維工業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力織機等 우수한 기계의 大量生産은 그중은 例이며 銑鐵製造의 경우 코-크스高爐의 採用도 技術進歩의 그 實證中의 하나이다.

완만한 發展임에도 不拘하고 1820年代 및 30年代 初에 있어서 徐徐히 産業資本主義 發現의 前提가 이룩되었으며 産業革命 準備期가 이렇게 하여서 독일의 大部分에 대한 經濟的統一을 達成케 한 關稅同盟이 設立되었다. 不變固定資本의 強力한 投下를 기초로하여 30年代後半 特히 40年代에는 生産 特히 資本主義的 工業經營의 生産成長速度가 急速化했다. 換言하면 1840年代以後는 鑛山業 冶金業 그리고 機械工業을 中心으로 한 産業化가 비약적으로 進展했다. 이리하여 1830年代 以後 海外依存에 크게 기대하였던 독일은 重工業의 自立體制를 굳혔고 70年代頃에는 反對로 重工業製品의 輸出國으로 轉換하므로써 海外로 進出하는 企業人들의 對外競爭

(18) vgl., K. v. Borries; Das Puddelverfahren in Rheinland und Westfalen, volkswirtschaftliche betrachtet Rechts-und Staatswiss., Diss., Bonn, & Düsseldorf, 1929, S. 53.
vgl., Beck, L.; Die Geschichte Eisens, Braunschweig, 1899, S. 703.

力を強化시켰고 나아가 적극적인 進出의 可能性을 保障하기도 하였다.

IV. C. Illies 商社의 活動

1846년에 發行된 “Weser-Zeitung” (Bremen)에 의하면 同年에 유럽外地域에 存在했던 393個의 獨逸商社의 支店에는 465名의 主人과 774名의 從業員이 經營에 參加하고 있었으며 其中 277社는 한자(Hansa)系였으며 116社는 非한자系이었다. 이 商社中 北美에 137社(其中 76社는 한자系임) 멕시코에 48社(其中 40個社가 한자系) 西인디아에 35商社(其中 28個社가 한자系) 그리고 南美에 98個社(其中 67個社가 한자系)가 있었다. 全아세아에는 當時 64個의 獨逸商社가 設立되어 적극적으로 交易의 擴大를 위하여 努力하고 있었으며 其中 57個社가 한자系이었다⁽¹⁹⁾. 이 57個中의 代表的인 會社中의 하나가 C. Illies 商社이다. 이 會社의 活動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商社의 代表들은 日本의 처해있는바 實情을 상세히 그리고 可能한 限 신속히 本國으로 傳해주므로 독일의 對極東 特히 對日交易의 增加를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들이 着日한 後부터 本國의 同志와 交換한 書信을 보면 거의 大部分의 消息中에 日本에 關한 事情을 紹介하고 또 앞으로 計劃되는 交易을 위한 甚 有益한 情報를 제공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其一例를 紹介하면⁽²⁰⁾ 곧 日本은 멀지 아니하여 西洋의 教師를 必要치 않게 될 것인바 그理由는 극히 짧은 期間內에 和蘭人의 도움으로 航海上의 그리고 技術上의 問題를 해결코 船員을 양성하고 西洋人의 도움없이 어려운 海岸航海를 빨리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Gildemeister는 함블크商人들이 예기했던바 綿製品이나 毛製品을 日本人이 交易商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武器 의약품 그리고 化學製品 등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그들은 商人으로서만 活躍한 것은 아니다. 日本과 獨逸의 相互修好通商을 체결하기 위한 初期過程에 있어서 民間外交官으로 情報를 제공해주고 또 交渉過程에 있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協助를 擔當했다. 그리고 Kniffler가 한때 長崎駐在 독일領事로 독일을 代表하는 官吏로 對政府活動을 한것을 비롯하여 이 會社의 代表는 副領事 領事 또는 명예領事로서 독일人의 善導와 保護에도 努力하였다.

1864년에 있어서 Kniffler는 橫濱駐在 프로이센副領事 1865년에는 長崎駐在 명예領事로 活躍했던바⁽²¹⁾ 이러한 경우 日本에 居住하면서 行動하던 프로이센人에 對한 法的인 問題는 그에게

(19) vgl.,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Gedenk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S. 56~57.

(20) vgl., Kathe Molsen; C. ILLIES & Co., a. a. O., S. 25.

(21) vgl., a. a. O., S. 52.

달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Eduard Hildebrand 教授에 의하면⁽²²⁾ 當時 日本을 訪門하는 많은 독일인 예컨대 船長, 軍艦의 함장, 그리고 外國의 領事들을 극진히 대접하므로 民間外交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들이 取扱했던 商品의 종류는 極히 多様하였다. 代表的인 것은 섬유製品 鐵, 錫, 鉛等 金屬類 寒天 銅 葡萄種子 벌꿀 그리고 樹脂等 廣範한 商品을 去來하고 있다. 이 以外에도 海藻 海薑類 石炭 茶 짐승의 皮革이나 털 실탕 치분 등도 기록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

L. Kniffler는 또한 自國製品만을 交易의 對象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1861年 Kniffler가 독일을 訪門하였을 때 그는 英國産商品의 對日去來에 關心을 가지고 접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即 독일에서는 비록 生産은 되어지고 있으나 良質品을 供給하고 있지 못한 Velvet, Chintz, Drell과 같은 섬유 製品 등이 그 對象이었다.

넷째 그들은 日本의 近代化 産業化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協調하는 方向에서 그들의 事業 利潤을 확보하려 하였다. 日本의 섬유工業과 製紙工業의 發達을 위한 그리고 양조업 特히 麥酒의 生産을 위하여 독일인이 日本에 미친 영향이나 도움은 극히 至大하였으며 特히 C. Illies & Co.나 그 前身의 經營者의 기여는 몹시 컸다.

1880年代 以後에 있어서 日本은 독일인에 의하여 많은 開發의 도움을 입었다. 그 하나를 紹介하면 1876년부터 1905년까지 日本에서 활약한 Stuttgart 出身의 의사인 Erwin Bälz 博士를 비롯하여 大學에서 哲學 言語學 地學 法學分野의 教授가 그리고 새로 설립된 山林 우체경찰 制度의 導入을 위한 독일官吏들의 努力 그리고 새로운 兵制의 확립을 위한 독일인의 關與 宗教活動을 위하여 橫濱地區에 세운 教會組織⁽²³⁾等 産業 以外에 다른 幅넓은 活躍과 공헌에 C. Illies & Co.의 代表들이 參與하고 있다.

다섯째 1865년에 독일商社를 위하여 18隻의 船舶이 日本으로 入港하였는바 其中 6隻이 C. Illies商社의 前身 L. Kniffler & Co.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18隻의 船舶이 싣고 들어온 商品의 噸數를 分析하면 約 그 折半이 이 商社의 것이었음을 볼때 對日독일무역에 있어서 C. Illies & Co.가 占하였던 比重은 지극히 컸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表 1〉 日 本 の 貿 易 高

單位：100萬圓

年度	輸出入			總計	年度	輸出入			總計	年度	輸出入			總計
	輸出	輸入	總計			輸出	輸入	總計			輸出	輸入	總計	
1893	89	88	177	1902	258	272	530	1909	413	394	807			
1895	136	129	265	1904	319	372	691	1911	489	530	1,019			
1900	204	287	491	1905	322	489	811	1913	632	729	1,361			

(22) vgl., Käthe Molsen; a. a. O., S. 52.

(23) vgl.,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a. a. O., S. 80~81.
vgl., Käthe Molsen; a. a. O., S. 65~66.

1893年으로부터 1913年까지의 期間中 日本의 對外貿易의 實積을 百萬圓 單位로 紹介하면 앞의 圖表 I 과 같다⁽²⁴⁾.

1890年으로부터 1913年까지의 독일의 對外무역高를 보면 圖表 II 와⁽²⁵⁾ 같다. 이 期間中에 있어서는 輸入이 恒상 輸出에 比하여 컸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輸入의 경우 對유럽分이 過半數 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輸出에 있어서는 近 70% 가량이 유럽諸國家로 向하고 있었다. 이 에 比하여 對亞細亞州의 交易은 극히 적은 部分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圖表 II〉 독일 대 외 무역 고

단위 : 100萬마르크

〈輸入〉								
년도	지역	총 계	유럽	미국	아세아	아프리카	호주	
1890		4,272.9	3,233.2	770.7	165.1	57.5	51.4	
1895		4,246.1	2,819.3	959.0	267.7	79.4	118.5	
1900		6,043.0	3,797.2	1,578.4	370.0	147.1	125.4	
1905		7,436.3	4,633.3	1,897.0	507.7	227.6	164.3	
1923		8,934.1	5,196.8	2,190.7	828.3	418.0	902.0	
1918		10,770.3	5,889.3	2,994.4	1,049.4	496.8	327.7	
〈輸出〉								
1890		3,409.6	2,661.6	605.7	96.3	21.9	23.3	
1895		3,424.1	2,630.2	604.2	122.3	42.9	23.4	
1900		4,752.6	3,699.6	698.5	230.9	73.1	50.0	
1905		5,841.8	4,379.6	956.8	316.7	123.0	53.0	
1910		7,474.7	5,683.9	1,255.0	332.3	181.3	71.8	
1913		10,096.5	7,677.2	1,546.5	547.9	210.7	103.6	

新時代로부터 世界一次大戰이 발발하기 以前의 期間中의 독일의 貿易政策史는 三期로 即 重商主義 自由貿易主義 그리고 保護貿易主義 時代로 區分되어진다. 19世紀 中葉으로부터 獨佛戰爭 前까지의 期間中에는 이미 英國에서 採擇하고 있었던 自由貿易思想이 독일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1818年의 稅制改正은 自由무역에로의 強化 契機를 이루었고 1834年의 關稅同盟의 체결 그리고 1873年의 關稅改正提案을 통하여 1877년에는 거의 自由貿易政策을 採擧하는 狀況으로 되었다.

그러나 1879年의 關稅改正은 또 다시 독일에 있어서 保護貿易政策을 採擇케 하고있다. 이

(24) Käthe Molsen; a. a. O., S. 77.

(25) vgl., Statisches Handbuch für das Deutsche Reich,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Teil II, Berlin, 1907, S. 506~513.

(26) vgl., Statisches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35. Jahrgang, Berlin, 1914, S. 253~254.

時代의 關稅政策은 von Bülow와 Caprivi에 의하여 形成되었다고 할수 있다. Caprivi의 關稅率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그리고 Bülow의 關稅率은 1906년부터 有效했다. 當時 독일의 貿易政策의 主目的은 農業의 保護, 工業의 保護育成 그리고 財政問題의 解決이었다. 이와같은 國家政策 目標下에서 독일의 企業人은 極東에서 商易에 임하여야만 했다.

Caprivi는 自由貿易政策을 各國家別로 協定關稅制를 導入하는 方向으로 끌고 나아갔다. 各國家의 特殊狀況을 充分히 고려하여 去來品種에 따라 各各 相異한 關稅率을 策定케 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 오지리—헝가리(Österreich-Ungarn)間의 協定을 보면 독일側은 農産物에 關한 關稅 木材 肉類 鳥類 家畜 諸原料 半製品 그리고 紙類, 도자기, 寶石等 一部完製品에 대하여 關稅率을 低下시켰고 오지리—헝가리側에서는 섬유製品에 대하여 平均 20% 稅率을 低下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리製品 鐵製品 例컨데 기계 道具같은 製品에 대하여도 關稅率을 低下시켰다⁽²⁶⁾. 이태리와 독일間의 關稅協定을 보면 독일은 化學工業部門에 뿐만 아니라 毛織物 鐵製品 그리고 絹織物에 利點을 그리고 이태리는 農業部門의 生産物을 內包시키고 있었다. Caprivi의 關稅政策은 工業을 위하여서는 적절하였으나 農業部門을 위하여 有利한 立場은 아니었다. 그리고 많은 土地所有主의 反對에 接하여 不得已 1902年 12月 25日 關稅率을 改正할 수밖에 없었다⁽²⁷⁾.

1906년부터 發効케된 Bülow의 關稅率은 農業과 工業의 保護를 目的으로 策定되었다. 그리하여 主要農水物에 대하여서는 復關稅制를 導入했고 工業製品에 대한 關稅率을 높이었다. 그리고 原料의 輸入을 위하여서는 輸入關稅를 免稅시켰다. 이 稅制의 特徵은 “Doppeltarif”와 “Kampf-Zölle” 개념의 導入이라 할수 있다. 日本과 독일 間에는 1899年 發効한 通商條約에 의

〈圖表 Ⅲ〉 獨逸輸出入에 있어서 占하는 韓日兩國의 比率

年 度	日 本		韓 國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1 8 9 0	0.1 %	0.5 %	0.00019%	0.0014%
1 8 9 3	0.2	0.6	—	0.0008
1 8 9 7	0.2	1.0	0.00028	0.0013
1 9 0 0	0.3	1.5	0.00015	0.0028
1 9 0 3	0.3	0.9	0.00022	0.0026
1 9 0 7	0.3	1.5	—	0.0029
1 9 1 0	0.4	1.2	0.0029	0.003
1 9 1 3	0.4	1.2	0.0001	0.011
1890~1913	0.1~0.4%	0.4~1.5%	0.0%~0.00399%	0.0002%~0.016%

(26) vgl.,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Jena, 1922, S. 387.

(27) vgl., Theodor Plaut;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S. 126~127.

하면 相互 互惠原則을 준수하였고 이 協定의 內容이 決코 日本에 居住하고 商行爲를 하던 獨商人의 活動을 제어하지는 아니했다. 그리고 圖表Ⅲ⁽²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參考로 日本과 韓國이 1890년부터 1913年間に 있어서 독일의 對日貿易에 있어서 占하였던 比重을 分析하면 日本의 경우 最高 1.5% 韓國의 경우 最高 0.016%(1912年)에 不過했으므로 독일側에서 對極東諸國과의 稅率調整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獨企業人 亦是 같은 立場이었다. 이와같은 與件下에서 C. Illies 商社의 經營者는 活動을 敢行하여야만 했다.

V. 日本에 있어서의 産業擴大政策

初期 對亞細亞 特히 對極東交易을 開拓 擔當하였던 企業人의 大部分은 한자 都市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H. Ahrens & Co.의 설립자 Heinrich Ahrens는 Bremen 出身, Firma Boeddinghaus의 창립자 Carl Ernst Boeddinghaus는 Lüttringshausen出身 그리고 Hamburg出身 August Evers Hamburg出身의 商人 Theodor Johns 등이 그러했던 것과같이 L. Kniffers & Co와 C. Illies & Co.의 經營者를 보아도 Louis Kniffler는 Düsseldorf Gildemeister는 Bremen出身 August Evers는 Hamburg出身 Carl Illies는 Waren/Mecklenburg 出身임과 같이 대개가 프로이센의 氣質이 강한 北獨과 그 영향이 크게 미쳤던 中獨 以北 出身이었다. 이들 企業人은 出生地를 떠나 Hamburg, Bremen 그리고 Düsseldorf를 거쳐 亞細亞 特히 極東에 關한 知識을 얻고 또 그곳에서 企業經營에 關한 實習 經驗을 쌓고 그 다음에 任地로 向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Hamburg를 中心으로 한 地方의 독일人의 性格을 Stur하다고 한다. 바보스럽게 頑固했던 그들은 積極적이면서 前進的인 프로이센氣質, 그리고 거기다 港口都市 出身의 對外志向的인 面, 이 모든 것이 未知의 世界로 進出할 수 있는 動力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統一된 獨逸聯邦國家를 組織하기 以前에 이미 極東地域에 使節艦隊를 편성 파견하여서 中國 日本 그리고 韓國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고 소위 Eulenburg Expedition 이 日本을 訪門하였을 때에는 그곳에 9個의 獨逸商社가 存在하면서 활발히 交易하고 있었다. 1862年 橫濱에는 25名의 독일人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프로이센人뿐 이었다는 事實⁽²⁹⁾을 보아서도 단적으로 證明되어진다.

둘째로 獨逸의 商人들이 直接 日本으로 건너가 事業을 한 例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東南亞에 一時 歸着하여 직접 商交易經驗을 쌓고 또 極東에 關한 지식을 얻은 후 또는 香港이나 中國

(28) vgl., Statistisches Handbuch für das Deutsche Reich,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Bd. 2, Berlin, 1907, S. 508~513.

vgl.,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31. Jahrgang, Berlin, 1910, S. 225~228, 273~275 und 35. Jahrgang, 1914, S. 254.

(29) vgl.,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a. a. O., S. 75~76.

을 거쳐 조심스럽게 日本을 訪門하고 있는 것과 같이 C. Illies 商社의 創業者라고 지칭할 수 있는 Louis Kniffler는 Batavia를 거쳐 그리고 Gildemeister는 홍콩을 거쳐서 訪日하고 있다. 그리고 Carl Illies를 보면 그는 그의 出生地를 떠나 Neubrandenburg, Newcastle on Tyne, Hamburg 그리고 Bellenhagen & Co.에서 日本과의 商易에 關係케 되면서 情報를 入手하고 日本을 目的地로 독일을 出發한 후는 上海에 들어서 조심스럽게 日本을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未知의 世界에 대하여 알므로서 가장 적은 失敗로 企業에 임하려는 돌다리 두드리는 心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外的인 要因 以外로 그들이 失敗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積極적이면서 進取的인 프로이센 氣質에다 조심스러운 이 商社員의 接近方法은 他國商人이나 同族 他企業人이 經營하는 企業에 대하여 그 成長이나 活動成果가 팔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로 그들은 利用可能한 모든 方法을 다 活用하고 있다. 獨日의 交涉過程에 있어서 積極적으로 協助함으로 日本國內에 있어서 L. Kniffler 商社의 地位를 向上시켜 外交關係가 樹立되자 이 商社의 社員中 프로이센을 代表하는 駐日領事, 副領事 또는 명예領事라는 職責을 맡게 되어 日本內에 居住하는 독일人을 保護하고 그들의 活動을 支援해 주는 一方 스스로의 業務에 有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日本의 開港都市에는 앞을 다투어 支社를 設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開港이 예상되는 地區에 關한 情報를 미리 入手하여 交易增進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日本에 居住하고 外國人 또는 企業人들의 組織을 이룩하고 이 組織을 利用하여 日本政府에게 壓力을 加하거나 關係改善 協調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其一例로 1866年에 橫濱에 所在했던 46個의 外國人商社의 代表가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組立하였는바 이때 L. Kniffler & Co.는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하였다. 橫濱에는 1870~80年代에 독일商人의 Club인 “Concordia”가 있었는바 L. Kniffler & Co.의 Wilhelm Pardun은 이 Club의 會長으로서 독일商人의 保護, 地位向上에 크게 기여하므로 自己商社의 利益을 더하고 있다. 또한 앞서 紹介한 바와 같이 取扱對象 去來品種이 廣範圍하고 多樣하였다. 自國商品뿐만 아니라 他國의 生産品도 利潤 확보를 위하여 기꺼히 取扱하고 있다.

또한 日本은 開港直後는 外國으로부터 많은 種類의 完製品을 輸入하여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外國의 技術協調와 日本人의 努力이 효과를 얻어 自體生産이라는 結果를 가져오기 始作하자 完製品의 輸入은 制限하면서 自國의 유치산업의 保護 育成이라는 方向으로 國策을 轉換케 되었다. 이렇게 되자 日本의 방직工業의 發達에 크게 기여하였던 독일은 다시 日本의 製紙産業의 發達을 비롯하여 양조업 군수品産業 인쇄出版業 그리고 기계공업의 發達을 위하여 積極적으로 介入하므로 日本의 産業과 독일의 産業 및 技術과 聯結을 맺게하므로서 商目的을 크게 이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교사, 의사, 지리학자, 선교사 등의 導日에도 깊이 관련하므로 立體的인 交易增進方案을 採擇하고 있다.

넷째로 C. Illies 商社의 社員이 日本서 活動할때 그들의 決心은 可히 決死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國力을 善히 利用하면서 必要할 때는 強壓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初期 獨逸商人들은 장탄한 권총을 항상 준비해 놓고 交易했다는 記事⁽³⁰⁾를 보아서도 그들의 商行 爲는 평탄치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Ⅵ. 結 言

C. Illies & Co.와 그 前身인 L. Kniffler & Co.는 가장 일찍 極東 特히 日本으로 進出한 獨逸商社中의 하나이다. 經濟的狀況이 他國에 比하여 劣位에 있었던 獨逸人에게 極東이 紹介되자 極東으로 進出해 보겠다는 그들의 의욕은 소위 他先進諸國의 國民에 比하여 決코 뒤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勇氣와 意慾을 가지고 開拓者의精神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成長이나 擴充은 놀라울만 했다. 그런고로 그들은 比較的 短期間에 이미 어느 程度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있었던 諸國의 商人들을 앞지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位置를 굳히었던 것이다. 조심스러우면서 進取的으로, 政治的으로 不利한데도 上항을 교묘히 利用하면서 強弱, 優劣, 堅軟 諸政策을 다 採擇하고 있다. C. Illies 商社가 바로 그 典型的인 會社이다. Hamburg市 Gansemarkt 45番地에 있는 C. Illies & Co. 本社에서 Carl Heinz氏를 만났을 적에 그역시 自己 會社는 人間이 取할 수 있는 全方法을 다 活用하여 日本서 活路를 開拓하고 成長했음을 強調하는 것을 들었다.

원래 여러가지 理由 即 世界第一次 및 二次大戰 關東地方의 대지진 會社의 經濟的 理由로 因한 資料確保의 不備 및 史料提供이 可能的 人員도 이미 存在치 아니한다는 事實 등으로 이分野에 關한 分析이나 研究는 무척 어려운 苦境을 맞보아야 한다. 다만 이分野에 關한 研究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問題를 던진다고 생각해서 出發하였다. 보다 충실한 史料를 求하여 깊은 검토와 分析이 반드시 行하여지리라고 믿을 뿐이다.

참 고 문 헌

- Bechtel, Heinrich;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 Bde. 3, München, 1956.
 Hrsg. Ostasiatischer Verein; Gedenkschriften zum 5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50.
 Hrsg. Ostasiatischer Verein; Gedenk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Gothein, Georg; Der deutsche Außenhandel, Berlin, 1901.
 Lütge, Friedrich;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3,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Hattori Yukimasa; The foreign Commerce of japan since the Restauration 1869~1900, in: Socia and industrial history of Johns Hopkins University Studies, Volume X X II. Baltimore, 1904.

(30) vgl., Käthe Molsen; a. a. O., S. 62.

- Koepsel, Kurt; Die Entwicklung des Japanischen Außenhandels, insbesondere der deutsch-japanischen Handelsbeziehungen vor dem Weltkrieg, Kassel, 1929.
- Plaut, Theder;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 Molsen Kathe; C. Illies., 1859~1959,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deutsch-japanischen Handels, Hamburg, 1959.
- Kwang-soo, Kim; Der Auß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9.
- Preußisches Handelsarchiv, Berlin. Mittler & Sohn, Berlin, Jahrgänge 1860~1880.
- Deutsches Handelsarchiv; Wochenschrift für Handel und Gewerbe Jahrgänge 1880 bis 1914, Mittler & Sohn, Berlin.
- Berichte über Handel und Industrie, herausgegeben vom Reichsamt des Innern 1896~1913, Carl Heymanns Verlag, Berlin.
- Brandt, Max von; 33 Jahre in Ostasien, Erinnerungen eines deutschen Diplomaten, Wigand, Leipzig, 1901.
- Eulenburg, Friedrich Graf zu; Briefe an seine Familie, erschienen unter dem Titel: Ostasien 1860~1862, herausgegeben von Graf Philipp zu Eulenburg, Mittler & Sohn, Berlin, 1910.
- Meissner, Kurt; Deutsche in Japan 1639~1939, Schriftenreihe des Deutschen Auslands-instituts, Stuttgart, Neue Reihe, Band 8,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40.
- Mecking, Ludwig; Japans Hafen, ihre Beziehungen zu Landesnatur und Wirtschaft, Hamburg, 1931.
- Wätjen, Hermann; Die Anfänge des deutsch-japanischen Handelsverkehrs im 19. Jahrhundert, in;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Hamburgische Geschichte, Band XXXV, Hamburg, 1936.

Die erste deutsche Handelsfirma, C. Illies & Co., in Japan

Kim, Kwang-soo

Zusammenfassung

An der weltgeschichtlichen Entwicklung im Fernen Osten hatten die Deutschen keinen Anteil. Ihr Reich gliederte sich noch in eine Vielzahl selbständiger Länder, die nur der Deutsche Bund zusammenhielt. Die beiden vorherrschenden Staaten, Preußen und Österreich, dachten kontinental-europäisch, und so ist es erklärlich, daß Deutschland kaum mehr als ein Begriff, auf keinen Fall aber ein Verhandlungspartner war.

Aber von einer anderen Seite her verfolgte man die Vorgänge in allen Ländern jenseits der Meere mit allergrößter Aufmerksamkeit: die drei Hansestädte Hamburg, Bremen und Lübeck waren aus ihrer alten Handels- und Schiffahrtstradition an allen Nachrichten interessiert, die sie über entscheidende Entwicklungen in der weiten Welt erhielten. Freilich befaßte sich Bremen noch in erster Linie mit dem Ausbau des Nordamerikageschäfts. Lübecks Wirtschaft blieb vornehmlich nach Skandinavien und auf den Ostseeraum ausgerichtet, Hamburger Reeder und Kaufleute dagegen wandten sich den überseeischen Fragen zu. So nimmt es nicht wunder, daß in erster Linie sie sich mit den Berichten über das Geschehen in fernen Gebieten eingehend befaßten. Seitdem Behn, Meyer & Co. in Singapore saßen, Carlowitz & Co. und Siemssen & Co. in Kanton arbeiteten und J. C. Godeffroy & Sohn sich anschickten, die Südsee zu erschließen, war Hamburgs Flagge in den asiatischen Gewässern bekannt, aber keines dieser und anderer, später gegründeter Häuser hatte direkte Verbindungen mit Japan. Über die dortigen Vorgänge war zwar unterrichtet, jedoch die Hamburger Schiffahrt blieb vom Besuch der japanischen Küstenplätze weiterhin ausgeschlossen, weil das fernöstliche Inselreich das Anlaufen seiner Häfen -auch der jetztgeöffneten im Gegensatz zu China nur denjenigen Staaten gestattete, mit denen es Verträge abgeschlossen hatte. Für die Hansestädte hieß das, entweder Japan zu veranlassen, daß es den Schiffen aller Handel treibenden Nationen Zugang gewähre, durch Vermittlung eines anderen, befreundeten Staates zum Abschluß einer Übereinkunft zu gelangen, oder schließlich unter eigener "Firma" eine hansealisch-japanische Verständigung zustande zu bringen.

Aber nicht nur die Inhaber schon bestehender und bekannter Firmen befaßten sich mit den ostasiatischen Fragen, sondern auch jüngere Kaufleute, die sich erst vor wenigen Jahren in Hamburg niedergelassen hatten. Zu diesem Kreis gehörten Friedrich Pandel und Jakob Bollenhagen. Bollenhagen betrieb ein gutgehendes Agentur- und Kommissionsgeschäft

und nahm, als er dessen Wirkungskreis ausdehnen wollte, Friedrich Pandel in sein Unternehmen auf, das fortan unter dem Namen Bollenhagen et Pandel arbeitete. Laeisz verfolgte mit großem Interesse die Tätigkeit von Bollenhagen et Pandel. Als die Inhaber, denen sich inzwischen noch der junge Hamburger Spediteur Georg Friedrich Stiehaus angeschlossen hatte, ihn von ihren Bemühungen um die Errichtung einer ausländischen Niederlassung unterrichteten, bot Laeisz den jungen Kaufleuten seine finanzielle Hilfe an. 1848 wanderten Pandel und Stiehaus nach Batavia aus, wo sie gleich nach ihrer Ankunft das Importgeschäft Pandel & Stiehaus gründeten. Bollenhagen blieb in Hamburg und besorgte unter der Firma Bollenhagen & Co. neben dem wachsenden Stadtgeschäft den Einkauf für die Freunde in Niederländisch Indien. Beide Unternehmen gediehen gut.

Die gute Entwicklung weckte in beiden den Wunsch nach Arbeitsentlassung. Sie baten daher Jakob Bollenhagen, ihnen einen jüngeren Gehilfen hinauszuschicken. Der Zufall wollte es, daß bei Bollenhagen & Co. im Jahre 1850 ein intelligenter und sehr lebhafter Junger Rheinländer als Stadtreisender mit besonderem Eifer und Erfolg arbeitete: Louis Kniffler aus Düsseldorf. Bollenhagen legte ihm die Anregung von Pandel und Stiehaus vor, und Kniffler griff die Gelegenheit, ins Ausland zu kommen, begeistert auf. Als Bollenhagen & Co. im Frühjahr 1852 ein Segelschiff für Pandel & Stiehaus nach Batavia abfertigten, ging Kniffler mit an Bord. Kniffler und Staecker übernahmen jetzt Pandel & Stiehaus. Bollenhagen war sofort zur Zusammenarbeit mit den beiden neuen Inhabern bereit; er blieb als Kommandist an der Batavia-Firma, beteiligt, für die er wie bisher von Hamburg aus arbeitete.

Der tatkräftige junge Kaufmann erhielt Nachrichten von den Verhandlungen und dem Abschluß des amerikanisch-japanischen Handelsvertrags. Ihm schienen die sich dadurch abzeichnenden Möglichkeiten für Importe fremder Waren wie ein Wink des Himmels; er rüstete sofort ein Segelschiff für die Fahrt von Batavia nach Japan aus in der Hoffnung, in ein Gebiet zu kommen, an dessen Aufnahmefähigkeit für europäische Industrieartikel er glaubte. Am 4. Juli 1859 sollte der japanische Handelsvertrag mit Amerika in Kraft treten, im Frühjahr 1859 kam Kniffler in Nagasaki an; ihn begleitete ein deutscher Angestellter der Batavia-Firma, der dort zwar erst seit kurzer Zeit mit ihm zusammenarbeitete aber, schon das volle Vertrauen seines Chefs genoß: der junge H.M. Gildemeister. In Nagasaki gründeten beide gemeinsam am 1. Juli 1859 L. Kniffer & Co. als erste deutsche Firma auf japanischem Boden. Louis Kniffler stellte sie, da er zunächst daran gedacht hatte, das neue Unternehmen als Filiale der in Batavia, also in Niederländisch-Indien ansässigen Firma Pandel & Stiehaus zu betreiben, unter hollaendischen Schutz.

Es ist erstaunlich, was die deutschen Kaufleute draußen in Japan geleistet haben. In der schwierigen Zeit nach der Öffnung der japanischen Häfen hielten sie trotz widriger Umstände aus; die Gewinne aus den wenigen Geschäften blieben gering. Dann bahnte sich langsam ein Umschwung an; seit Mitte des Jahres 1866 machte sich allenthalben eine Belebung des bisher nicht sehr regen Handels bemerkbar. Gildemeister berichtete, daß

“namentlich der Import europäischer Manufakturen einen großen Aufschwung zu nehmen beginne.” Er konnte das wohl am ehesten beurteilen, denn seine Firma L. Kniffler & Co war die erste deutsche Firma drüben gewesen und inzwischen die größte geworden. Louis Kniffler hatte durch seinen Hinweis auf die Bedeutung Japans als zukünftigen Absatzgebiet die Preußen seinerzeit ins Land gerufen, er gehörte zu dem Kreis ausländischer Kaufleute mit denen sich Eulenburg unmittelbar nach seiner Ankunft über Aussichten und Durchführung seiner Aufgabe in Japan unterhielt; nach dem Abschluß des Vertrages mit Preußen stellte Kniffler sich und seine Firma sofort unter dessen Schutz. Die Firma Kniffler & Co entwickelte sich überaus günstig. Äußerlich zeigten sich ihre Erfolge darin, daß sie in jedem neu geöffneten Hafen mit einer eigenen Niederlassung erschien und schnell Fuß faßte. Das erforderte stets die Einstellung neuer Mitarbeiter, die Kniffler aus Europa kommen ließ.

Ebenfalls über Bollenhagen & Co. kam 1866 Carl Illies zur Firma L. Kniffler & Co. nach Japan. Mit einem Vertrag für L. Kniffler & Co. in der Tasche reiste Carl Illies 1866 über Shanghai nach Nagasaki, er leistete der Firma so gute Dienste, daß ihm Kniffler 1868 Prokura erteilte und, da Gildemeister nach Deutschland zurückkehren wollte, die Leitung seiner Niederlassung in Yokohama übergab; 1870—1872 verwaltete der 30 jährige dort auch das Konsulat des Norddeutschen Bundes. Am 1. Januar 1873 machte ihn Kniffler zum Teilhaber seines Japanhauses.

Das Haus L. Kniffler & Co. besaß nach Parduns Austritt drei Inhaber: Louis Kniffler und Gustav Reddelien in Düsseldorf und Carl Illies in Yokohama. Die beiden Älteren bezeugten dem Jüngeren ihr Vertrauen dadurch, daß sie Carl Illies die Weiterführung des am 1. Juli 1859 errichteten Japanhauses übertrugen. Illies übernahm die Firma mit deren gesamten Personal, dem Grundbesitz, Kontor und Lagerräumen sowie sämtlichen Geschäftsverbindungen. Er behielt jedoch den alten Namen nicht bei, sondern Carl Illies führte, um seine nun mehrige volle Verantwortung auch nach außen hin sichtbar zu machen, das Geschäft unter seinem Namen weiter; als Teilhaber trat zu ihm Victor Röhr, die Firma hieß ab 31. Mai 1880 C. Illies & Co., K.G., Yokohama, Kobe, Osaka; aus freundschaftlicher Verehrung für seinen alten Chef ließ Carl Illies lediglich den Firmenmantel L. Kniffler & Co. bestehen. Die Firma entwickelte sich in Japan und Deutschland im grossen und ganzen gesehen ununterbrochen aufwärts. Stockungen im Geschäft, Störungen sorgen und stärkere Rückschläge blieben natürlich nicht aus. Nach dem Tode von Carl Illies sen. übernahm sein ältester Sohn die Leitung des Unternehmens.

Carl Illies hat Japans wirtschaftliches Erstarken miterlebt. Der Handel nahm von Jahr zu Jahr, die japanische Industrialisierung vermehrte den Warenaustausch Japans politische Bedeutung in Asien kam seit Ende des 19. Jahrhunderts in einer immer größeren wirtschaftlichen Ausdehnung zum Ausdruck. An diesem Aufblühen des Landes hatte die Firma C. Illies & Co. erheblichen Anteil, ihr Geschäft dehnte sich entsprechend der japanischen Entwicklung trotz mancher Rückschläge ständig aus.